"귀농, 사업 떠나 농촌 변화 방안 고민해야"

전남 귀농산어촌인을 만나다 <1> 무안 '아따달다 농장' 윤지환 대표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및 '귀농산어귀촌 정책 발굴'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은 '귀농산어촌'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및 경제난으로 지친 이들이 번잡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힐링하는 '촌캉스'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 이틀은 시골에서 산다는 '5도2촌'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농산어촌에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운영, 전남에서 '제2의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남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전남으로 귀농귀촌한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윤지환 무안 '아따달다' 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팜에서 키우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둘러보고 있다.

'아따달다'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방울토마토.

"막연히 귀농귀촌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사업에도, 농어촌에 정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안에서 4년째 '아따달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환(31) 대표의 말이다.

윤 대표는 직장생활 도중 회의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유학생활하면서 우연히 접했던 농업을 떠올리며 귀농을 결심했다.

귀농지로 무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목포와 김제, 강진, 무안 가운데 한 곳을 두고 고민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고향은 목포였으나 강진에 땅이 있었고, 김제의 경우 김제 혁신밸리에서 배운 것도 있었고 재배를 도와줄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안 근처에 남악 신도시가 위치해 도시근교 농업과 더불어 농촌체험 등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농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안을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부터 교육과정 및 실습을 진행한 그는 2020년 본격적인 농업에 뛰어들었고, 올해로 4년째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윤 대표는 "준비 과정이 있긴 했으나, 작물에 대한 지식 또는 재배 방법 등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그 시기 전남농업기술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윤 대표는 전남도에서 진행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입주, 창농타운에서 교육을 받고 방울토마토 재배를 결심했으며, 이후 가공 및 IR, 투자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전남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 기반을 다졌다.

그는 "사실 귀농에 있어 내가 얼마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460평 임대로 스마트팜 농업을 시작으로 공판장이었

스마트팜·농촌 체험 등 판로 확대
전남농업기술원 준비지원 큰 도움
"작목 확정·땅 구매 신중해야" 조언

지만 100% 직거래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총 2000평에 가공품까지 만들어 순익률을 높이는 등 많은 도움에 힘입어 정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윤 대표는 농정원에서 주최한 팀프로젝트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테크와 관련된 지식을 쌓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딸기 무인방제기를 제작해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를 통해 에어로타워라는 재배도구를 연구, 펀딩을 통해 각 1500만원, 2000만원이 넘는 매출도 기록했다. 올해는 스마트팜의 재배면적지의 확대 및 목포대학교 석사과정 수료를 통해 자신과 같은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귀농인들을 위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입을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따달다' 농장 모습.

연 윤 대표는 "귀농을 하고 작목을 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흐름이 좋은 작물보다는 안정적이고 재배력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작목을 정하고 땅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야 할 땅을 1~2년 정도 지켜보고 사기를 추천하며, 비가 올 경우 침수가 되는 땅인지, 침하가 되는 땅인지에 따라 다르니 이를 집중해서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추천했다. 윤 대표는 "하우스를 짓고 땅을 살 경우 대출은 잘 되지만, 하나의 사업인 만큼 자본이 많이 들어가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막연하게 농업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자리를 잡고 현금 흐름이 생길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귀농, 귀촌을 통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 취재는 전남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서울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 '2024 농촌 살아보기' 최우수상

섬투어·민속문화 체험 등 호평

진도 길은푸르미마을이 전국 최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대표 이재병)이 이날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및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 사이트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가자 활동 내역,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일자리 및 주거 제공 등을 평가한다.

올해 경진대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귀농·귀촌형 120개 마을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소를 뽑았고, 이 중 상위 5개소 마을(전남·충북·경북 2·경남)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발표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은 프로그램 구성도와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길은푸르미 마을은 지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았다. 11실의 숙박시설과 교육관, 잔디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췄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6개월간 12가구 16명의 귀농어귀촌인에게 영농·어촌 체험, 섬투어(관매도·조도), 민속문화(북놀이·아리랑·민요) 체험, 진도 홍주 만들기, 울금을 활용한 특산물 요리 체험, 봉사활동,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진도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을 가미해 타지역과 차별성을 강조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 알선과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등도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진도 길은푸르미마을 이재병 대표 등이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느끼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농식품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각 시·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동환·진도=백재현 기자